

3.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간다. 손가락 한 개 길이쯤이나 될는지, 단차가 낮아 마치 하나로 쪽 펼쳐진 콘크리트 대로를 걷는 기분이다. 너르고 야트막한 이 계단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간다. 검은 보따리 여럿을 얹어놓은 카트도, 헬멧 끈을 푼 배달원도, 머리가 희끗한 할머니도 이 길에선 가볍게 걸을 수 있다. 잠깐 계단에 팔렸던 눈을 들어 보니 야시장이 펼쳐진다. 지하의 높은 천장에는 주황빛 전등이 일렬로 촘촘하게 길을 비추고 있어 대낮인 지상에서보다도 눈이 부시다. 양 옆으로 도열한 가게들에선 통일성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 건강식품과 치약, 양주, 그릇, 통조림. 온갖 것들이 ‘수입’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는 곳, 바로 남대문 수입상가다.

모두가 마스크를 쓰는 시대에도 여전히 인파로 붐비는 상가 밑에는 사실 지하가 한 층 더 있다. 손님들은 모르는, 가게 사장님들의 창고가 자리한 지하 2층. 내려가는 길 벽에 ‘큰 소리로 통화하지 맙시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람 소리로 시끄러운 걸 반기는 한 층 위의 세상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계단이 끝나는 곳에 서니 미로처럼 세 갈래로 나뉘는 복도가 나온다. 어딘가로 나아가길 망설이며 스스꺼리는 발소리마저 민망할 정도로 조용하다. 인기척도 없다. 여기서 사람 하나를 찾아야 하는데. ‘에라, 모르겠다’며 맨 처음 길로 들어섰다가 운 좋게 그 사람, 김아름(가명, 31)씨를 만나고야 말았다.

아름씨는 ‘아름이네 선물가게’란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다. 아직은 팔로워 천여명에 세일즈 포인트도 높지 않지만, 질 좋은 남대문 상품을 찾는 손님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고객층은 부모님 선물을 사려는 청년들부터 남대문까지 오가기 힘든 중년 손님들까지 다양하다. 요즘 인기가 좋은 상품은 챙이 넓은 썬캡, 가재 손수건, 레이스로 된 운전 장갑 같은 것들. 장사하시는 부모님을 따라 수입상가를 제 집처럼 드나든 ‘남대문 키즈’ 이력에 힘입어 자리를 꾸렸다. 지금도 부모님은 지하 1층에서, 아름씨는 지하 2층 창고를 사무실 삼아 온라인으로 제품을 팔고 있다.

8평 남짓, 앞뒤로 길쭉한 창고 중에 아름씨가 쓰는 공간은 1.5평 정도. 대부분 공간은 재고 물품들 차지다. 푸른색 철대로 틀을 잡은 뒤 나무 합판을 올려 만든 보관대 위엔 포장된 양말, 옷,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검은 봉투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잘나가는 상품들은 바닥에 풀어둔 채 검수하고, 포장하기를 반복한다. 쪽가위를 들고 레이스 장갑의 실밥을 정리하는 아름씨의 손은 인터뷰 내내 쉬지 않고 움직였다. “직접 (시장에)와서 봤으면 안 샀을 거다 하는 소리는 안 나오게 하려고요. 검수를 제일 열심히 해요.” 그 뒤로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나고 있는지 같은 걸 물어봤다. 오래된 남대문의 젊은 사장님, 인터넷을 쓸 줄 아는 그의 대응은 달랐나 싶어서였다. 좋은 얘기였지만, 진짜 얘기는 그걸 수첩에 정리하느라 침묵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시작됐다.

“사실은요. 저도 제가 남대문에 있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싶고개를 펴뜩 들었을 때, 그는 실밥 정리를 마친 장갑을 들어 스탠드 불빛에 비춰보며 확인하고 있었다. “안.. 있고 싶었죠. 저도 기자님처럼 공부 곧잘 했고, 꿈도 많았거든요.”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번듯한 회사에서 통번역 업무를 맡았던 그의 삶은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기 낳고 나니까, 회사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임신했으니 초콜릿 같은 것 말고 건강한 간식을 챙겨 먹어야 된다는 동료들과 작별도 못 했다. 그럼에도 동료들에게

따로 연락을 하거나, 회사에 항의하진 않았다. 배신감보다 수치심이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임신했을 때도 새벽같이 출근해 밤늦도록 일했는데, 이렇게 쉽게 잘려버릴 열심이고 능력이었던가 싶었다. 나는 다들 거라 생각했던 흔한 '아이 엄마' 스토리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 무서웠다. "처음엔 충격 받았다가, 나중엔 '아, 이게 내 현실인 건가?' 하면서 저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아이를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아예 한국을 떠나버릴 생각도 했다. 그 꿈에 꽤나 근접했었다. 미국 재외공관에 시험을 봐서 '(한국 생활)정리하고 이 날쯤 오면 되겠다'는 구체적인 얘기가 오갈 정도였으니 말이다. 순조롭게 풀리는 상황에 너무 '안심'했던 탓일까. 아이를 다른 곳에 맡기지 않은 채로 미팅을 하던 도중, 아이가 우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당황해서 아이 방 쪽을 쳐다보고 만 아름씨 뒤로 서늘한 말 한마디가 꽂혔다. '혹시, 아기 있어요?' 목 뒤로 오도도 소름이 돋았다. '없다'고 대답하지 못한 아름 씨는 그날 '사정상 함께하지 못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아 들었다.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보다 더 깊은 무력감이 찾아왔다. '앞으로 회사 같은 곳에서는 일을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든 벗어나보려던 현실에 완전히 눌러버리고 나선 프리랜서로 하던 일도 손에 잡을 수가 없었다. 반년을 멍한 상태로 사는데, 그런 딸을 보다 못한 부모님이 장사라도 해보라며 창고를 내주셨다. 선물, 가게의 시작이었다.

꿈이 많았다고 했다. 지금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물었더니, 의외의 대답이 나왔다. "저는 지금, 행복하거든요." 자유롭게 출근해서 4-5시 정도로 늦지 않은 때까지 일을 하고, 아이를 충분히 사랑해줄 수 있는 삶을 산다. 온라인스토어, 라이브채팅, SNS처럼 다양한 통로로 손님들을 만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재미를 안다. 회사에 남았더라면 꿈꿀 수 없었을 지금의 행복이 지속될 수 있길 바란다는 게 아름씨의 꿈이었다. 갑자기 꿈이라니 좀 민망하다며 웃다가, 한 마디 더 보탠다. "아, 하나 더요! 젊은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사장님들도요. 잘 모르시는데, 남대문 되게 좋은 곳이에요."

인터뷰를 마치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길. 시장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길어 올린 이야기는 높이 걸린 세상의 어떤 성공담보다 가깝고 귀하다. 아쉬운 마음에 뒤돌아본 시장 입구엔 푸른색 네온 줄을 두른 채 빛을 내는 간판이 달려 있다. '전국제일 명품상가,' 호언장담하는 것이상의 시장과 사람이 여기 남대문에 있었다.

김유나 부산MBC 010-9741-1226

5.

[르포] 금요일 밤 선릉역 두 번째 얼굴을 만나다

하늘이 검푸르게 변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어둠을 가르듯 선릉역 먹자골목을 날쌔게 지나갔다. 핸들에 없어진 손은 하나뿐. 다른 한 손은 그의 품속으로 들어갔다가 바닥으로 향했다. 그 순간 핑크, 노랑, 파랑. 형형색색의 종이들이 발자국처럼 흩뿌려졌다. 발걸음을 이제 막 댄 듯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가 땅을 뻥히 쳐다본다. 바닥에 떨어진 오색색종이가 신기한 듯 시선을 놓지 못한다. 엄마는 발걸음을 재촉하듯 아이의 손을 끌어당겼다.

♡셔츠룸 10만원♡

가라오케! 오늘밤! 후회 없는 선택!

☆룸☆ 아가씨 100~150명 향시 대기



[28일 밤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발견된 성매매 업소 전단지다. 김유나 기자 una@busanmbc.co.kr]

지난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선릉역의 두 번째 얼굴이 드러났다. 회색 바닥이 유흥업소 전단지로 물들었다. 마사지방, 오피스텔, 가라오케 등 업종도 다양하다. 각기 다른 업종인데 인쇄된 사진은 비슷하다. 하나같이 혈빛은 여성이다. 성매매 업소 전단지가 널브러진 거리로 경찰차가 유유히 지나간다.

어둠이 깔려야 문을 여는 옷가게 우리나라는 법으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성매매 처벌법 제 4조는 성매매 및 알선 행위뿐만 아니라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 역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법이 만연한 선릉역 1번 출구. 어둠이 깔려야 문이 열리는 옷 가게도 생겼다. 선릉로 86길 인근 여성용 오피스룩이 전시 되어있던 한 가게. 아나운서들이 입을 법한 하늘하늘한 블라우스부터 몸매 라인이 드러나는 원피스까지 '여성스러운' 옷들이 있었다. 살을 빼서라도 입고

싶은 옷들이었다.

"로드샵은 이런 옷을 어떻게 들여오세요?" 기자의 물음에 돌아온 답은 "새벽 2시에 영업 끝나면 동대문에 가서 직접 옷을 골라 와요."

새벽 2시라.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하는 회사원들이 새벽 2시에 옷을 사러 나오지는 않을 텐데. 알고 보니 유흥업소 여성들이 주 고객인 옷 가게였다. 그들의 활동 시간에 맞춰 저녁 늦게 문을 열고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는 것이었다. 그제야 안 보였던 것들이 보였다. 문에 쓰여 있던 글씨 CLOSE am 02:00. 명품 가방도, 오피스룩도 어느 하나 진짜인 게 없었다.

#### 버젓이 운영 중인 퇴폐 마사지 업소와 풀살롱

선릉로 86길엔 유독 마사지 업소가 많았다. '골드 마사지, 탑 마사지, 하우스마사지, 헤리마사지' 적어도 두 건물에 하나씩은 마사지 가게가 있었다. 많게는 한 건물에 세 개의 업소가 있기도 했다. 가게로 올라가기 전까지 간판만으로는 퇴폐업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는 가게들도 수두룩했다. 한 업소는 원통형 회전 간판을 통해 퇴폐 마사지 업소임을 넌지시 암시했다. 선릉로 86길 38에 위치한 '탑 마사지'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 건물 4층에는 이발소용 회전 간판이 달려있다. '섹시 마사지, 4층, 탑 마사지' 라고 써진 회전 간판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간다.

이 건물 건너편 골목에는 '멤버십 라운지 클럽' 라고 써있는 'I.O.U'라는 가게가 있다. 성인 남자 키의 두 배 정도는 거뜬히 될 만한 거대한 문 앞에 택시와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있었다.

일반적인 라운지나 클럽과는 대조적으로 그 혼한 LED간판, 담배 피러 나온 사람 하나 없어 영업 중인지 알 수 없었다. 한참을 기다리자 'I.O.U'문이 열렸다. 택시에서 두 남자가 내려 문 앞에 다가서자 업소 관계자가 명단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줬다. 구글에 '선릉 아이오유'라 검색해보니 '룸살롱 I.O.U'가 나왔다. 그리고 룸살롱 광고 글에는 전단지에서 봤던 '란제리 셔츠룸'이 태그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대낮, 예기치 못한 만남, '미성년 출입금지'

이 거리의 불쾌한 알록달록은 매일 아침이면 환경미화원 아저씨 손에 종적을 감춘다. 낮 시간 선릉역은 직장인과 학생들로 가득 찼다. 이 시각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 업소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가게들은 어떤 모습일까. 가게들은 문을 닫고, 휘황찬란하게 빛나던 LED 간판도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몇 곳은 낮이 밝았음에도 찌든 때를 완전히 벗지는 못했다.

비가 온 다음 날 아침, 테헤란로 70길 26에 위치한 양꼬치 가게 앞에 '란제리 셔츠룸' 전단지가 젖어 바닥에 눌러 붙어있었다. 양꼬치 가게 건물 2층에는 바가 있었고, 3층에는 마사지 가게가 있었다. 간판으로는 퇴폐업소인지 확인할 수 없어 직접 3층으로 올라가봤다. 대낮이었지만 건물 안은 어두웠고, 업소 문 앞 '하우스 마사지' LED간판은 붉게 빛났다. '벨을 눌러주세요.' 라는 버튼과 함께 놓인 의자. 그리고 그 앞을 서성이는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고요한 눈 CCTV. 퇴폐업소임을 확인하고 내려온 뒤에야 젖은 전단지 옆에 놓인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는 게 보였다.

매일 저녁 8시면 선릉역 먹자골목에서 전단지를 뿌리는 오토바이를 볼 수 있다. 전단지가 뿌려진 곳 주변을 관찰하다 보면 손쉽게 성매매 업소들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거나 전단지를 뿌리며 날아다니는 오토바이를 붙잡는 경찰은 만나보지 못했다. 전단지 배포자, 건물주, 업소 운영자,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 그녀들을 위해 새벽에 일을 영입하는 옷 가게 사장, 그리고 이들을 보고도 눈감고 있는 경찰. 이 모두가 선릉역의 어두운 생태계를 이루는 구성원이다. 경찰이 이 생태계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어젯밤이 그랬듯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선릉역 아스팔트는 분홍빛, 노란빛, 파란빛으로 물들 것이다.

백담 CBS 010-4427-9905

18.

#### 가게 상인들 개인정보 털어 소액결제한 대리점 직원, CCTV로 발목잡혀

"나는 이 300만원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구로구 구로시장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이순덕(69,여)씨는 시장에서 알아주는 구두쇠다. 순덕씨는 돈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다. 그녀는 버스비를 아끼려고 아침 저녁으로 왕복 네시간이 넘는 거리를 걷는다.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다섯시에 집을 나서고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귀가한다.

시장에서는 흥정이 생명이지만, 순덕씨에게 가격 흥정을 했다간 별안간 한소리 듣기 일쑤다. 가게를 감싸고 있는 파란 천막에는 "흥정 사절"이라고 쓰인 코팅지가 이곳 저곳에 붙어있다. 그녀에게 허락된 사치는 매일 아침 종이 컵 가득 타 마시는 따끈한 믹스커피 한 잔이 전부.

그럼에도 그녀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이 전혀 없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돈으로 순덕씨는 집을 샀다. "서울도 아니고 용인이라 자랑할 만한 건 안된다"고 수줍어하면서도 숨길 수 없는 자부심이 느껴진다. 그리고 그 집엔 아들네 가족이 산다. 아들에게 집을 사줄 수 있었던 건, 본인의 절약정신 때문이라고 그녀는 굳게 믿는다. 순덕씨에게 '구두쇠'는 자부심이다.

그런 순덕씨에게 지난 2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가게 전화요금으로 300만원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한 달 전화비용으로 많으면 7,000원을 납부하던 것에 비해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다. 순덕씨는 다른 사람의 청구서가 잘못 배달됐나 싶어 다시 청구서를 보지만 '이순덕' 글씨가 너무나 선명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서는 "본인 가게 전화에서 소액결제한게 맞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버스비가 아까워 매일 네 시간을 걸어다니는 내가 전화요금으로 300만원을 썼다는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을 알 수조차 없어 순덕씨는 청구서를 들고 곧바로 근처 구로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은 설명을 듣더니 수사는 커녕 사건 접수도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게 이유였다. 경찰은 "사건 접수를 위해서는 통신기록과 정확히 어느 업체에서 결제했는지 알 수 있는 서류를 결제 대행사에 청구해서 가져오라"고 했다.

지난 1월 10일 오후 10시 구로구의 한 통신사 대리점. 불이 다 꺼진 사무실에서 황동구(30)는 모니터를 보며 무언가를 급하게 적는다. 잠시뒤, 그는 사무실에서 나와 구로시장으로 향한다. '구로상회' 앞에 선 그는 익숙한듯 천막을 위로 젖히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다. 그는 가게 데스크 오른쪽 구석에 있는 빨간 전화기를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건다. 미리 적어온 종이를 펼쳐 버튼을 누른다 "510823..." 같은 행동은 밤새 반복된다. 새벽 여섯시가 넘어서야 황씨는 다시 천막 밖으로 나온다. 이 같은 행동은 지난 1월 한달간 총 13차례 반복됐다.

황씨의 범행이 발목 잡힌 건 CC(폐쇄회로)TV 덕분이었다. 순덕씨의 통신 기록에서 확인된 결제 시각쯤 가게 앞 CCTV에서 황씨가 가게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서울구로경찰서는 대리점 손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업장에 몰래 들어가 소액결제를 하는 수법으로 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화 대리점 직원인 황모(30)씨를 최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황씨는 같은 수법으로 10명의 피해자 내선전화에서 문화상품권과 게임머니 등을 결제해 총 1130만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대리점에서 계약한 시장 상인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후, 시장 운영시간이 지난 야간에 가게에 침입해 소액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황씨는 침입이 용이한 천막형 가게를 노리거나 창문이 열린 가게를 미리 파악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